

입시와 사교육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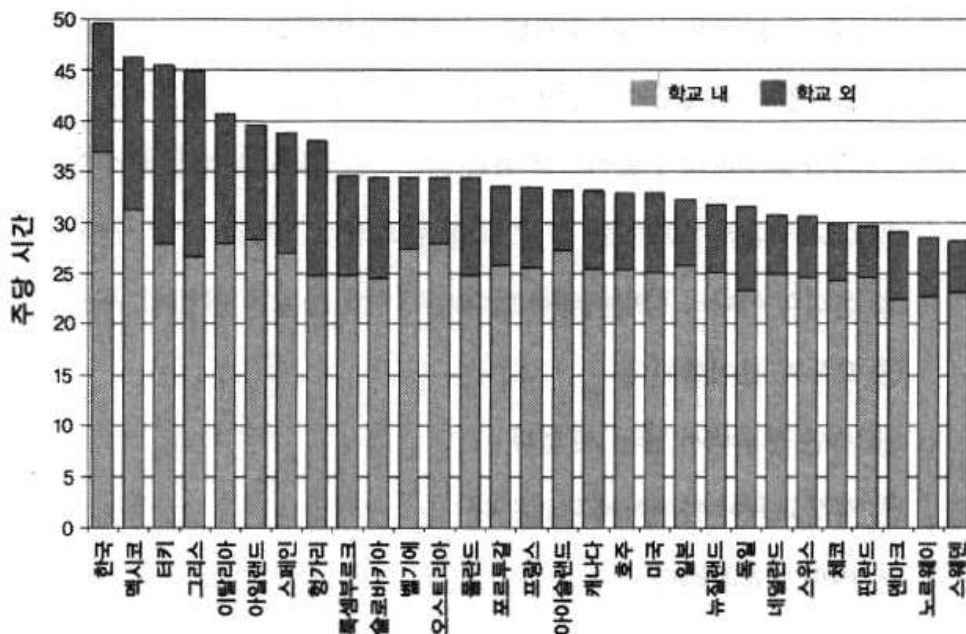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1.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1) 학교와 학원의 이중 공부에 지친 아이들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6시간의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3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다. 물론 이 시간은 숙제를 하거나 개인이 예복습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업을 듣는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들을 포함하면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이 훌쩍 넘어간다. 이러한 공부량은 세계 최고의 시간이다. 어른들에게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노동량을 제한하고 있는 현 노동법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표2〉 나라별 15세 학생 주당 공부시간



출처: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p.242

2)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교육

이렇게 학교와 학원으로 오가며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각각의 공부가 의미가 있다면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학원의 공부 둘 다 명문대 입학에 위한 한 줄 서기 경쟁에서 좀 더 앞서기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 암기 학습이라는데 있다.

흔히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교육정책 입안자들도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라면 이 말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말인지 안다. 물론 현재 공교육이 부실한 것이 사실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많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부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교육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기본이라 이것만으로는 남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경쟁이 가정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공부 시간의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든 학원이든 입시 시험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을 하다보니 교육적으로는 정말 질이 낮은 교육, 엄청난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글은 미국에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이 한국 교육에 대해 쓴 글이다.¹⁾

시험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교육.

배우고 나면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교육.

누구나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며 모두가 좌절하는 교육.

정답 찍는 요령만 숙달하는 교육.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하는 교육.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능력을 못 키우는 교육.

십수 년을 배워도 변변한 생활영어 하나 구사 못하는 교육.

3) 어정쩡한 학교, 입시에 전념하는 학원

흔히 공교육의 질의 문제를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가 학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교사집단이 갖는 무사안일과 경쟁력 약화를 지적할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학교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교의 경쟁력을 학원과 비교하여 문제풀이식 입시 대비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놓고 이야기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은 것이고 학교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다. 사실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입시 현실과의 괴리다. 학교 교육은 국어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 하는 것을, 수학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리적 원리 이해, 사회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입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객관화된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는 교사들은 교육과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객관화된 시험 문제 풀이 교육 사이에서 늘 고심을 한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남들보다 앞선 결과를 내야하는 우리 입시 구조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두고 가르쳐야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쉬운 문제풀이 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원의 목표는 너무 분명하다. 다른 고민 없이 입시를 대비한 문제풀이 교육에만 전념하고, 아니 이를 위해 목숨을 건다. 심지어 학원의 번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약간의 허점만 보이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 입시 경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학원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학교가 갖는 어정쩡함과 학원이 가지는 문제풀이식 입시 교육에의 전념은 이 두 가

1) 조선일보 2001년 3월 5일자 기사에 실린 글, 조기숙,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지식공작소, 2007), p.7에서 재 인용

지 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와 학원 사이의 이 미묘한 갈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현실적으로 점수를 올려주는데 학원의 공부가 도움이 되지만 학교의 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한편으로 내신 점수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사들 가운데 학원이 근접할 수 없는 교과와 본질에 근거한 배움의 기쁨을 주는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음을 느끼기도 한다) 현실 가운데서 자기도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4) 학생들의 다양성과 소질과 적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공부의 짐을 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러한 짐이 개별 아이들의 성장과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교사들은 중1 성적을 보면 그 아이가 어느 수준을 대학을 갈지 대략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90% 정도 정확하다. 중1에서 고3에 이르기까지 개별 아이들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성적은 거의 변화가 없다. 중1 시험은 암기와 문제 풀이중심의 입시 시험에 대한 아이의 적응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가운데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늦게 철이 들어 나중에 상위권으로 진학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부에 특별한 은사나 흥미도 없으면서 특별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붙들고 있다. 물론 이 아이들도 상위권이나 다를 바 없는 -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 사교육을 받고 있다.

중고등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소질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음,미,체 관련 특목고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성적 중심의 입시의 길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근접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입시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전문계고(이전의 실업고) 역시 또 다른 자신의 소질을 키우고 입시와는 다른 통로로 진로를 준비하는 길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의 또 다른 유리한 한 통로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낙인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 선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집의 경우 대부분 조기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집의 경우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다.

2.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부모 :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재능을 적게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좋은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을 끌라 많이 투입해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현재와 같은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공부)에 대한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단기간에 집중해서 암기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현재 우리 학교 체제의 공부 방식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보

다는 다른 부분에 재능을 가진 경우다.

물론 아이가 현재의 입시 체제의 공부 스타일에 잘 맞고 이런 식의 공부에 은사가 많아 성적이 잘 나와 주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아이들의 은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적 기회 제공과 은사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학교를 거치면서 공부에 대한 은사가 많지 않음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공부에만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낭비와 아이가 입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 이 경우 공부 외 아이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히 현재 공교육 체제가 이러한 은사 분별과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2) 국가와 시민사회 :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발과 배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교육을 관통하는 교육적 전제다. 즉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더 나은 혜택을 주고,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선발과 배제의 기제로 사용하려다 보니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객관화된 점수로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한 시험 선발 방식이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다시 학교 교육의 내용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이렇게 정형화된 시험의 틀은 사교육이 불기 매우 유익한 구조가 되어 사교육 변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 있는 서구의 교육을 보면 ‘발견과 발굴’을 교육의 본질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각 학생에게 맞는 더 심화된 혹은 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특징이나 특기를 잘 관찰하여 격려 혹은 보충해 주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나 사회는 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상세한 기록과 결과물에 근거해서 자신의 대학이나 전공 사회에 맞는 학생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물론 이 나라 교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나라가 겪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과 공교육의 왜곡, 사교육의 변창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선발과 배제’를 벗어나 ‘발견과 발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가 객관화된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화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대학과 학과가 추구하는 교육내용에 맞는 학생을 찾아가는 ‘교육적 타당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국가 단위의 수능은 점수가 아닌 자격고사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대학은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가 제공한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상세한 배움의 기록과 배움의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특기와 특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배움의 기록을 만들려면 고등학교 혹은 초중학교의 교육이 현재와 같은 문제풀이식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에 사교육이 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공교육은 제 기능

을 회복하며 살아날 수가 있다.

3) 교회 :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교회는 우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셨으며, 가정과 학교는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재능들이 제대로 잘 발현되게 도와주고, 거기에 맞게 진로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기독교 교육관을 교인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 같이,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재능에 따라 다른 부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교인들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선발’과 ‘배제’에 근거한 점수에 의한 한 줄 세우기 무한 경쟁이 성경적이 아니며,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혹은 성공한 교인들이 점수에 의한 무한 경쟁의 현 상황을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구조를 지지하거나 더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선발’과 ‘배제’에 근거한 무한 입시 경쟁이 지극히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전통에 서 있는 것임을,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배여있는 서구의 교육관은 ‘발견’과 ‘발굴’의 교육임을 교육함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아가 교인들이 우리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관에 근거한 ‘발견’과 ‘발굴’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격려해야 한다.